

한국농어촌공사 강화옹진지사, '강화형 농어촌일자리 만들기' 발대식 개최

✎ 이범수 | ⓒ 승인 2021.06.15 17:34



'강화형 농어촌일자리 만들기' 발대식에 참석한 유천호 인천강화군수(가운데), 배준영 국회의원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. 사진=강화군청

한국농어촌공사 강화옹진지사는 15일 강화군 소재 명진컨벤션센터에서 '강화형 농어촌일자리 만들기' 발대식을 개최했다.

강화형 농어촌일자리란 군민에게 보다 나은 일자리와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소득 증대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,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업무와 농지원부에 미등록된 농지조사, 군 수탁사업과 국책사업 현장 근무 등이 있다.

현재 농업용수 공급과 농지조사사업은 영농기에 64명, 군 수탁업과 국책사업 현장 근무는 비영농기에 고용되며, 이는 농어촌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해 맞춤형 농어촌일자리 만들기를 위함이다.

발대식에는 유천호 강화군수, 배준영 국회의원, 신득상 강화군의회 의장, 장기천 대한노인회 강화군 지부회장 등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준수하며 진행됐다.

이수근 지사장은 "강화군과 협조체계로 상생·협력을 통한 농어촌 맞춤형 일자리, 청·장년형 맞춤형 일자리, 어르신에 맞는 일자리, 시간별 나눔 일자리 등 보다 나은 일자리와 보다 많은 일자리 만들기 극대화에 노력해 강화군민의 소득 증대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"고 말했다.

이에 유 강화군수는 "한국농어촌공사 강화옹진지사가 강화군민을 강화형 농어촌일자리에 우선 고용해 감사하다. 강화형 농어촌일자리 만들기에 군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"고 답했다.

강화형 농어촌일자리 평균고용 기간은 6개월이며, 연인원 3만7천332명의 고용효과가 기대된다.

이범수기자



이범수 ameegojbn@joongboo.com